

구원등판 '우상호 비대위' ...민주 계파전 봉합할까?

계파갈등 수습 여부에 성패 전대까지 사실상 '관리형' 친문-친명 '전대 틀'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우상호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6·1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내용 수습에 나선다.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비대위는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추인을 거쳐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공식인 청년·여성 및 비대위원 인선도 이르면 이날 완료될 것으로 보

인다. 두 달간 활동할 새 비대위의 성패는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친문(친문재인)계 대 친명(친이재명)계의 극심한 갈등을 얼마나 조기에 봉합하느냐에 달렸다.

당장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월에 치러지는 만큼 내분 사태가 지속될 경우 당권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면서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새 비대위가 이른바 '혁신 비대위'를 표방했지만, 활동기간이 2개월 안팎인 데다 내분 수습이 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결국 관리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대위원이기도 한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혁신과 변화는 정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차기 지도부가 해 나가는 것이 맞다"며 비대위의 역할의 방향을 '관리'에 뒀다.

다른 비대위원도 "두 달 만에 당 체질을 바꿀 혁신안을 우리가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8월에 들어설 새 지도부가 '쇄신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로운 혁신 비전을 만드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비대위에서 다 정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친명계에 속하는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에서 "비대위 구성이 혁신적이지 않아 아쉽다. 국민이나 당원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결을 달리했다.

'선거 책임론'을 앞세워 이재명 상임고문의 전대 출마를 차단하려는 친문계와 강성 당원의 지지세를 업고 이 고문의 당권행을 계획하는 친명계의 대결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결국 뇌관은 '전당대회 틀'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계를 비롯한 범친명계는 기존 물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친명계는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물론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이 대거 포진한 권리당원 비중이 확대될 경우 이 고문은 무난히 당 대표에 오르고

측근 인사들도 대거 최고위원단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우 의원이 계파색이 약하고 합리적 성향의 중진이라는 점에서 비대위원장에 '낙점'됐지만, 본인이 인적 쇄신의 대상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의 대표 인사라는 점에서 리더십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

당장 친문계와 친명계는 '우상호 비대위' 출범일인 이날에도 "당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원했다는 것은 이재명 고문의 거짓말"(홍영표 의원), "이 고문에게 전대 출마를 하지 말라는 것은 비이성적 처사"(안민석 의원) 등 서로에 견제구를 던지며 으르렁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수석, 후반기 원구성 협상 불발

법사위원장 배분부터 견해차 국회의장 선출 등도 결론 못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법사위의 개선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

담회에서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법사위의 월권으로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진 의원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임위 재배분에 (여야 간)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원내수석 간에 수시로 소통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진 의원은 '절충안을 고려하는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타협을 이루려면 양당이 모두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라며 "국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대 출마 고심 속 '기반 다지기' 시동

김동연 당선인과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만난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함께 '생환' 한 이후 첫 회동이다.

이 고문은 국회 출근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의원실에서 김 당선인의 방문을 받는다.

김 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잡힌 일정으로, 서로 당선 축하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가 되리라는 것이 이 고문 측의 설명이다.

이 고문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여전히 고심 중인 가운데, 당내 지지기반을 다지고 영향력 확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고문이 당의 잠룡 중 하나로 부상한 김 당선인과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당내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다만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하는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이 고문의 속내는 다소 복잡해 보인다. 친문계를 중심으로 이 고문을 겨냥한 책임론이 거둬 분출하고 있고, 여기에 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들은 적극 반박하면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당의 내홍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고민거리다.

실제로 이 고문은 이런 장단점을 두루 고려해 전당대회 출마와 불출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화합’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사진)는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의 몸이 됐다(박근혜 전 대통령)는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거론하는 데 대해 다소 거리를 두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속모델 강석우 내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공, 고칼슘, 비타D
- 건강유지 보충액 배터글루킨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아연, 셀레늄(Se)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주 분량 | 전국 어디서든 1577-0426 소필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문의 | 고객센터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동부영양소 (03)942-4937, 북부영양소 (03)989-9392, 남부영양소 (03)291-6535, 관영영양소 (03)293-4999, 서영영양소 (03)294-2255, 안영영양소 (02)295-4198, 광영영양소 (03)374-8921
● 충청영양소 (042)223-8801, 전북영양소 (063)224-5731, 전남영양소 (062)941-5001, 경북영양소 (053)259-3441, 경남영양소 (053)231-6538, 광주영양소 (054)751-8331, 부산영양소 (051)244-6561